

## 밥쌀용 쌀 수입 ... 農-政 갈등 고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오늘 1만t 수입 전자입찰 실시  
전농 광주전남연맹 나주 혁신도시 aT 본사 앞 농성

쌀 관세화를 둘러싼 정부와 농민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저울관세할당(TRQ)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TRQ 쌀 구매입찰 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을 오는 9월 5000t, 10월 5000t 총 1만t을 수입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전자입찰은 21일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서 5%의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쌀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구분하고 수입쌀중 밥쌀용으로 30%를 의무 배정했었는데 이 규정 자체

가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밥쌀용 쌀 수입 전면 중단이 어려우므로 1만 5000t 규모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밥쌀용 수입쌀이 꾸준히 국내 시장에 판매되며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요층의 요구도 있다"며 "갑자기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면 외국산 제품 차별 등에 대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출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밥쌀용 의무 배정을 없앤 것은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것인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밥쌀용 쌀은 일반적으로 가공용 쌀보다 등급이 높

고 가격도 10% 가량 비싸 해당 수입국의 쌀과 실질적 경쟁을 한다. 게다가 지난해 수입된 밥쌀용 쌀 재고 물량만 현재 1만1t에 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2일부터 나주 혁신도시 aT 본사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역시 지난 18일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의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는 성명에서 "정부가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게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쌀 7만7000t을 추가 격리키로 한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424만t 가운데 신곡 수요량 400만t을 넘는 양을 격리해 시장안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 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들의 목을 조이는 행위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작년 10월 전국에 내걸린 '우리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새누리당의 빨간 현수막은 1년도 안 돼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개선”

광주·전남 등 14개 시·도 1000만인 서명운동 확산

광주상의, 지방 투자 확대 촉구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선(先) 지역경제 활성화, 후(後) 수도권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경제계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역발전 협의체는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정기회를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 각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서명목표 인원을 할당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총 목표 57만명 중 현재 12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남과 전북,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부산 등도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유턴

기업 재정지원 허용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정지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와 전남의 기업 투자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공동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지역경제의 노력을 무가치로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 유턴기업에 재정이 지원되면 비수도권 이탈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가 경제의 한 축인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견우 직녀·심청이 노니는 광주천의 밤

20일 밤 광주공원 인근 광주천을 수놓고 있는 견우와 직녀, 토종물고기, 심청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등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25일)을 맞아 광주불교연합(회장 영광스님)이 설치한 전통등은 오는 27일까지 빛을 밝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해수 사용 기간 만료  
영광군, 허가 연장 촉각 ▶6면  
KIA 외야 호령하는 김호영 ▶20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 “배타성 버리고 열린 5·18로 나아가자”

윤장현 광주시장 제안

'시민시장'으로 첫 5·18 기념식을 치른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제는 열린 5·18로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17일 5·18 전야제에 여당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가 물 세례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사과의 뜻도 함께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윤 시장은 20일 5·18 메시지를 통해 "광주시장으로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그리고 금남로에서 5·18 35주기 행사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전제해 뒤 "다만 여당 대표가 5·18 전야제 행사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일은 '욕에 타'였다. 이는 전체 광주시민은 물론 5·18단체들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5·18이 배타성과 지역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일깨워 줬다"

며 "기슴을 활짝 열고 누구나 함께 동참하는 '열린 광주', '열린 5·18'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제는 열린 5·18로 나아가자"는 5·18의 전국화, 세계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국가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로 35주년 기념식이 양분돼 치러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곡으로 지정되고 '국민의 노래'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5·18정신의 핵심가치이자, 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광주정신에 입각한 '광주공동체 구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며 "5·18 35주년이 남긴 많은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Mercedes-Benz

장부양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1,991cc, 163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12.0km/l(도시연비 10.5km/l, 고속도로연비 14.6km/l), 3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16.3km/l(도시연비 14.2km/l, 고속도로연비 19.8km/l),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20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1km/l(도시연비 12.4km/l, 고속도로연비 17.0km/l),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0g/km • E 300 3,498cc, 179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9.7km/l(도시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1.9km/l), 4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83g/km • E 300 4MATIC 3,498cc, 186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9.1km/l(도시연비 8.0km/l, 고속도로연비 10.9km/l),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6g/km • E 350 BlueTEC 4MATIC 2,967cc, 204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12.6km/l(도시연비 11.2km/l, 고속도로연비 14.7km/l), 3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58g/km • E 400 4MATIC 2,996cc, 193hp, 7G-TRONIC PLUS, 복합연비 9.3km/l(도시연비 8.1km/l, 고속도로연비 11.5km/l),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20hp,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l(도시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9.3km/l), 9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238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재적 및 하중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